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천 갑 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천 갑 원

천갑원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28일



주 심 교 육 학 박 사 천 성 문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이 원 석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주 동 범 (인)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가. 정년은퇴시기	7
나. 평생학습자	8
다. 평생학습 참여동기	8
라. 삶의 행복감	9
4.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0
1. 정년은퇴시기	10
가. 정년은퇴의 정의	10
나. 정년은퇴 시기자의 특성	13
다. 우리나라 정년은퇴 제도의 문제점	18
2. 평생학습 참여동기	20
가. 평생학습	20
(1) 평생학습의 정의	20
(2) 정년은퇴시기자의 평생학습의 필요성	22
(3) 평생학습자의 참여 저해요인	25
나. 평생학습 참여동기	28

3. 삶의 행복감.....	33
가. 삶의 행복감의 정의.....	33
나. 삶의 행복감의 구성 요인.....	39
다. 정년은퇴 이후 삶의 행복감.....	44
4.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관계.....	46
5. 선행연구의 고찰.....	48
가.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48
나. 삶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50
III. 연구방법	53
1. 연구대상 및 절차.....	53
2. 측정도구.....	55
가. 평생학습 참여동기 척도.....	55
나. 삶의 행복감 척도.....	57
3. 자료처리 방법.....	58
IV. 연구결과	59
1.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59
2. 일반적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	60
3. 변인 간 상관분석.....	72
4.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73
5.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74
6.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75

V. 논의 및 결론	80
1. 논의	80
2. 결론	87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부록(설문지)	102
1. 평생학습 참여동기	
2. 행복감	



표 목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4
<표 III-2> 평생학습 참여동기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56
<표 III-3> 삶의 행복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57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59
<표 IV-2> 성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0
<표 IV-3>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1
<표 IV-4> 정년은퇴여부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3
<표 IV-5> 정년은퇴 후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4
<표 IV-6>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5
<표 IV-7>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6
<표 IV-8> 직업군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7
<표 IV-9> 연금수령 여부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69
<표 IV-10> 월평균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	70
<표 IV-1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72
<표 IV-12>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73
<표 IV-13>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75
<표 IV-14>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76
<표 IV-15>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77
<표 IV-16>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78
<표 IV-17>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쾌락적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79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천 갑 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요 약

본 연구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참여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년은퇴 도래자의 은퇴준비와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와 인근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중이거나 학습경험이 있는 자들로 은퇴시기 연령에 해당하는 55세~65세의 연령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210명 중 최종 20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지를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증 그리고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에 따른 삶의 행복감의 차이는 정년은퇴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하위변인인 학습지향, 활동지향, 목표지향은 모두 자아실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지향형은 자신감, 목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은 몰입감과 쾌락적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은 참여동기에는 큰 동인은 되지 않으나 삶의 행복감에는 다양한 개인차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 자아실현의 행복감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정년은퇴시기자는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평생학습 참여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 준비할 수 있고, 국가나 평생학습 관련자는 이들의 삶의 행복감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이들이 활동하고 즐겨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심도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 평생학습 참여동기, 삶의 행복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이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3.8%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9).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50세~64세 인구는 약 1,24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3.9%로 이는 65세 이상 인구 15.4%보다 월등히 많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7). 또한 인구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약 7,064천명이고 이중 1955년생부터 1958년생 약 2,800천명은 이미 정년은퇴를 하였고, 2019년에는 1959년생 약 795천명의 은퇴와 이후 60년생부터 63년생은 약 3,463천명으로 몇 십년간 다니던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게 된다(통계청, 2019). 우리나라의 이러한 인구 고령화 동향은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등장이었고 이제 이 세대들의 직장 활동이 연령적으로 정년은퇴를 맞이할 시점이 되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은퇴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 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심은정, 2012)로써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끝나는 시점이고,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규정 내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역할을 끝마치는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은 개인적 창업을 통한 산업발전보

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발전이 이루어져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기업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생업을 유지하여 왔고 이제 대거 정년은퇴라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년은퇴는 자발적 은퇴가 아닌 비자발적 은퇴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년은퇴자는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적 제도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개인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은퇴에 있어서 비자발적 은퇴는 은퇴 이후의 생활 적응력을 많이 약화시키고 심리적 역할 상실로 우울감과 부담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집단간의 비교를 보면 자발적 은퇴 집단보다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승원, 2007).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 적응 수준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개인이 지닌 자원에 따라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은퇴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부터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하며 은퇴교육프로그램의 설계도 종합적인 차원의 플랜을 제시하여야 효과가 있다(이수진 외, 2018).

반면, 은퇴의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정년은퇴 이후 삶의 자세를 인생의 단계적인 변화로 수용하여 새로운 삶의 전환, 일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 노후에 대한 기대감, 편안한 여생이라는 관점으로 정년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기대감과 긍정심도 갖기도 한다(임병우 외, 2013). 특히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나연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노인에게 있어 은퇴는 밀려남과 상실의 혼돈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였고, 남성노인들은 이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은퇴라는 중요한 사건에 적응하고 대응하여 새로운 인생을 발견해나가고 있다 하였다. 또한 정

년은퇴자의 사회참여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여가활동 참여로 얻어지는 정신적 안녕감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이호길, 2020). 이러한 사회참여와 자기개발활동의 은퇴준비는 경제적인 소득수준이나 가족과의 관계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어 은퇴 이전 교육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선희, 2012). 정년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의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선태무 외, 2012). 이러한 평생학습은 성인학습자의 사회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 등이 개인의 사회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종찬 외, 2016).

개인에 있어 정년은퇴시기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단계로 삶의 통합과 마무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전반적 삶에 대한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Seligman(2002)은 긍정적 정서, 적극성, 의미 있는 삶이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보았다(채경선, 2017). 그러나 노년기의 삶에 있어 행복은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행복감이지만 개인의 여러 변인이나 여건들에 의하여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느끼기 때문에 이를 쉽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인의 복지이고 노인들의 행복에 건강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년기의 삶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 사회가 노인들의 행복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임은기 외, 2009).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전의 많은 퇴직 이후 노인관련 연구들의 지향점은

노년기의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한 노년의 행복에 대한 여력을 갖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노년기의 진입단계에 있는 정년은퇴자에 있어서 삶의 행복감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정년은퇴자의 정년은퇴시기에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주관적 행복감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영향이 있고(장희영, 2015), 참여동기는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의 순으로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조승현, 2016) 평생학습 참여동기에 의한 성인학습자의 삶의 행복감을 제고해야 하고 개인 및 조직적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임영희 외, 2012).

인간의 행복은 추구하는 동기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적 보상에 의해 충족되는 동기보다는 내재적 행위자체에 만족을 얻게 되는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남승규, 2017). 노년기에서의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이러한 인간 자신의 내재적 행위자체에 만족을 추구하여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은퇴 이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여가 시간의 활용과 다양한 인적관계와 교류, 새로운 것의 배우는 즐거움, 또한 지적 충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노인의 조기 노화를 예방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고 삶의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권인탁, 2013). 또한 사회적 부가효과를 지니며 노인들의 소외감을 줄여 자살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막을 수 있고(김정영 외, 2013), 노년기의 생활에 활력을 갖게하고 신체적 동기도 높이게 되며, 생활만족도도 더 높은 만족감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이후 노년의 삶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은퇴 이후 삶의 적응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지식과 적응

력이 필요해서라고 볼 수 있으며(양희 외, 2014), 노년기에서의 지식의 필요성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새롭게 잘 적응하여 적절한 여가활동이나 제2의 경제활동 등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한 상태로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년은퇴시기자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 삶의 행복감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노인들이나 성인학습자들만 다루어 왔고(권인탁, 2013; 조승현, 2016; 허영주, 2016; 기영화, 2005; 임영희, 안주영, 권인탁, 2012), 노년기의 삶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노년기 진입 이후의 행복(고정임, 2018; 채경선, 2017)이나 노인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권해인, 2013; 최순자, 2015) 생활의 만족(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김미란, 2013)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은퇴자에 관한 연구들로는 은퇴세대의 노후준비, 은퇴교육과 만족도, 사회참여, 은퇴적응유형, 노후생활인식(손덕화, 2017; 손미혜, 2013; 손종철, 2010; 성지미, 안주엽, 2011; 전정숙, 2007; 이수진 외 2018; 김남원 외, 2016) 등이 있다. 이 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책, 정책(신상수, 2016; 최숙희, 2010; 선태무 외, 20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업만족도(신계수, 조성숙, 2011) 등이 대부분이고,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장희영(2015)의 연구가 있지만 그 대상이 일반적인 중·고령 성인학습자들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년 수십만명씩 은퇴하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개발,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통한 국민건강의 재정 부담 완화 등 각종 정책개발이나 문제점 해결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주 대상자들은 은퇴이후의 시점이나 일반 성인학습자 또는 고령으로 진입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은퇴 이후 삶의 방향 설정이나 대책, 은퇴적응력 등이 필요한 정년은퇴 시기에 있는 자들에 대한 대상은 미흡하고 이러한 대상자들의 행복감 추구를 위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직장을 은퇴하는 정년은퇴자들의 삶의 행복감은 노년기 생활의 준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와 관련된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은퇴 적응과 노후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참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참여동기를 고려한 효율성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운영과 개발, 그리고 평생학습자의 만족도 제고 등은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평생학습자는 평생학습 참여시 어떠한 필요성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는 평생학습에의 참여활동 시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은퇴시기자들의 정년은퇴 이후 자기계발을 통한 은퇴적응을 높이고 삶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년은퇴시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삶의 행복감에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년은퇴자 및 은퇴도래자의 은퇴이후의 삶과 은퇴준비에 대한 계획을 갖는데 도움을 주며, 정년은퇴자의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을 밝혀 봄으로써 평생학습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이나 은퇴이후 노년의 삶의 방향 설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동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삶의 행복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정년은퇴시기

정년은퇴란 조직의 구성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써(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에서 60세 정도이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대학의 교원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로 20년 이상 근속하면 명예퇴직도 허용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시기’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진행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네이버 표준 국어대사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년은퇴시기라 함은 법적 정년의 특정 시점의

전과 후를 포함하여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장기 근무를 하고 연령의 제한에 의하여 자동 퇴직하게 되는 대상자들의 시기로 55세부터 65세 사이를 정년 은퇴시기로 정의한다.

나. 평생학습자

평생학습자는 지식정보사회라는 시대적 맥락속에서 현대인이 각자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개인성취의 과정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인생목적을 성취하고 경험하는 실천의 주체자로 정의하고 있다(노현정,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자란 자신의 노후 인생의 행복감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 사회복지기관이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직업 훈련원 및 학교 등의 형태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강을 받는 비정규학습자로 정의한다.

다. 평생학습 참여동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여러 학자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각 개별 학습자의 배경적 특성과 경험, 처해있는 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를 명백하게 구분하거나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Houle(1961)에 의하여 구분된 참여동기 유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최운실,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Houle(1961)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운실이 개발(1986)하고 전명수(2012)가 사용한 참여동기 척도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의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삶의 행복감

삶의 행복감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진정한 자아와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라 하고 이의 요소로 낙관성, 자신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 인간관계, 자아실현,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이라 정의 하였다(권해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의 행복감은 이러한 정의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특정한 도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평생학습자의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실시, 좀 더 심층적이고 균형적인 설문조사가 어려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년은퇴시기

가. 정년은퇴의 정의

한 기관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장기간 근속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제도를 정년퇴직이라 하고, 근로계약에 있어서 종료 사유의 약정이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또한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를 정년퇴직이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고령자고용촉진법상(법제 19조)의 정년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에서 60세이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47조). 이러한 정년 이외 장기로 20년 이상 근속하면 명예퇴직도 허용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74조의 2).

퇴직이란 현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하고 한 개인이 기존의 오랫동안 종사해온 직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은 직장생활에서의 책임감과 압력으로부터의 기나긴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퇴

직은 기대했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전이과정이 되고 이에 따른 종전의 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Beaver(1983)는 이러한 전이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생물학적·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특성과 새로이 획득하게 되는 지위와 역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하였다(김경태, 2011).

또한 정년퇴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을 포함하는 용어로 은퇴라는 용어를 쓰고 연구한 논문을 보면 Butrica(2003)는 은퇴를 경제활동에서 떠나는 것으로 보고 직장에서의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활동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신타 외(1983)는 은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친 생활주기 상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년퇴직 혹은 퇴직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정년퇴직유형으로 크게 연령정년 제도, 근속정년제도, 계급정년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연령정년제도(노령정년 또는 은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연령 정년제의 기본 원칙은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해당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정년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근속정년제도는 조직에 들어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계급 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이영균 외, 2006).

이와 아울러 명예퇴직제도는 고용인이 제공하는 퇴직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정년연령 이전에 퇴직하는 제도이다. 즉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하며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정년연령 도

달 전의 퇴직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명예퇴직제도는 연령정년제도의 모형을 변형시킨 정년제도라 할 수 있다(이영균 외, 2006).

은퇴에는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전효수(2012)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무거운 책임, 의무,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개인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자아성찰의 시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은퇴 후의 시간적 여유는 잃어버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은퇴는 한 개인과 가정이 직업을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은퇴와 정년퇴직 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은퇴는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그만두고 현재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는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전효수, 2012)라 할 수 있고, 정년퇴직은 연령의 상한으로 제도적으로 일한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은퇴는 전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퇴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일을 할 의사와 여력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년퇴직에 있어서는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정년퇴직을 이제 전혀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은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퇴직을 통하여 그간의 직장이나 직업에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하는 퇴직자도 많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은퇴와 정년퇴직의 개념이 혼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제2, 제3의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지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그렇게 희망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기계발과 각종 활동만을 통하여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원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년퇴직을 은퇴의 개념에 포함하여 정년퇴직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연령의 제한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를 정년은퇴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정년퇴직 기준인 60세를 기준으로 명예 퇴직자를 포함하고 일반기업체의 최저연령인 55세와 교사 및 교원의 정년퇴직 연령을 감안한 55세부터 65세 사이에 주된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자를 정년은퇴시기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정년은퇴 시기자의 특성

정년은퇴 시기자는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서 연령적으로 노년생활이 시작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직장생활자는 정년은퇴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른 역할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입, 환경, 사회적 변화 등이 나타난다(이영균 외, 2006). 인간의 연령 증가로 인한 발달단계에서 정년은퇴시기는 노년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학습능력과 학습동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일반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울증의 경향으로 신경증, 감정적 무감각, 무기력감 등이 학습능력을 저해하고, 능동성보다는 수동성의 증가로 새로운 학습에 대한 동기수준은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을 저해하고,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경향 등이 나타나고 과도한 조심성이 심화되기도 한다(이호선, 2012).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은퇴는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하길 원하는 응답이 74.2%이고 이는 주된 수입원으로부터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히 하였고 미래의 불안한 노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년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

는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한다(양희, 2012).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년기에서 겪는 큰 괴로움은 건강과 정서적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소외감 등 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50대 중 후반부터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어 가정에는 빈 둥지 시기를 맞게 되고 은퇴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제력 약화와 지금까지 해오던 사회적 역할과 유대관계의 폭은 감소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고 약화되는 시기이다. 은퇴는 특히 남성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그리고 그동안 맺어온 사회적 유대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인생 중 가장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약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감소는 노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김정영 외, 2013). 퇴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부 시각은 사회적 무능력자 혹은 사회적 퇴출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퇴직자들은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런 평범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년은퇴에 대한 막연한 걱정내지는 상상을 하지만, 자신의 노후가 어떠 할지, 노후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권중돈, 2010).

정년은퇴에 대한 기대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의 지위나 역할,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가계소득의 감소와 한정된 소득으로 노후에 대한 기대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하는 부담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퇴직을 바라보면서 퇴직을 새로운 삶의 전환과 인생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정년은퇴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앞으로 경험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편안한 여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긍

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나연 외, 2007).

심리적 특성에 따른 한국 남성은 정년은퇴 후 과거에 유지해오던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자기존재감 상실, 경제적 압박감 등에 따라 구직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김미혜 외, 2008). 또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기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심리적 위축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한경혜 외(2012)는 남성의 은퇴가 여성의 은퇴에 비해 가족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남성은 일 중심으로 일상을 조직하면서 가족에서 주변화 되었고 여성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사회적 관계망도 직장을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역할에서의 퇴장은 소외감이나 외로움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반면 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한경혜 외, 2012).

현재 정년은퇴의 주 대상자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정년은퇴자는 자녀의 교육 및 출가와 노부모 부양을 같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후준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재취업을 선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년기에서 예비 노년기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은퇴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그리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한 불안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 정년은퇴를 하게 됨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년기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힘과 자신의 내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과 같은 복잡한 결과로 안정과 불안이 공존하기도 한다. 또한 중년기 남성들은 남은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사숙고하게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후회와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임병우 외, 2013). 반면 정년은퇴를 경험하게 되면 직업생활보다는 가족생활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지만 자녀의 성장에 따른 허탈감으로 결혼생활과 가족의 의미에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이기숙 외, 2002).

노년기의 특성으로는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주로 일어나는데 신체적 변화는 노화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로 신체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심리적 변화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일상에서의 적응력의 저하가 일어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건강에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경직성과 폐쇄성이 나타나 예전의 낡은 지식구조에 대한 집착과 지식을 습득하는 고정적인 방법과 틀 속에 갇혀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의 수행 중에 신체적으로나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타인의 도움을 얻어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성취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의존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존성은 신체적 의존성, 사회 심리적 의존성, 인지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이가 들면 자아존중감이 약화되어 우울증이나 자신의 인생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삶의 질 저하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없다는 등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최운실 외, 2017).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이론에 의하면 은퇴시기는 성인중기와 성인 후기에 해당되며 이때의 주요한 과업으로는 중년기 이후의 인생구조를 만드는 시기이고 은퇴와 신체적 노화에 대비하는 시기로 인생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라 한다(최운실 외, 2017). 신체·경제·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문제해결 능력의 감소, 신체적 능력의 감퇴가 오며 은퇴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고 자신이 수행해오던 역할이 상실되어 주요한 사회적 변화를 겪기도 한다. 임병우 외(2013)는 경기도 안양지역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서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 베이비부머로 2011년~2013년도 사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은퇴를 한 사람을 대상자를 심층 면접하여 정년은퇴를 경험한 고학력 남성 베이비부머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정년은퇴에 직면하게 되면 존재감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대부분 정체성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정년은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체성의 위기감은 낮았고 반면 정년은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체성의 위기감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재취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경제활동으로 미루어왔던 자아실현을 위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양성적 성역할 태도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체성에 대한 혼란기에서 자신을 수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재구조화로 새로운 역할과 함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 전략은 자신과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은퇴시기에는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가져오는 특성으로 인하여 안정감과 불안감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체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 이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정년은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힘든 심리적 경험을 하는 시기 일 수도 있고, 반면 인생에 있어

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이제 정년은퇴를 맞아 그 역할의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년은퇴 시기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로는 경제력의 약화와 경제적 압박감, 노후 불안감과 상대적 열등감,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감, 자기존재의 역할 상실감, 자녀 성장 및 출가로 인한 허탈감, 삶에 대한 우울감과 고독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사회역할의 물려줌,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일생에 있어 하나의 과정,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 나머지 인생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이라는 느낌은 이제까지의 삶에 대한 성취감과 자기 만족감, 자아 통합감 등으로 이후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가졌다 할 수 있겠다.

다. 우리나라 정년은퇴 제도의 문제점

정년은퇴제도, 즉 정년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등장했는데 크게 공직자정년제도와 기업정년제도로 구분되며 공직자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등 단행법에 의해, 기업정년은 기업 내의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또 유형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 없는 일률적 정년, 성별에 따른 정년, 직급별에 따른 정년, 성·직급별 정년 등이 있는데 일률적 정년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다음 백과사전).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년은퇴제도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일반적인 정년 나이인 55~60세, 또는 65세는 노인들의 정신적 조로(早老), 사회적 소외감,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일으키며, 무엇보다 인적자원에 있어 큰 자산인 정년은퇴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장(死藏)시키고, 근로 기회의 박탈로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퇴직자의 재고용 확대,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산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의 사회 현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역연령으로 정년을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문제 뿐 아니라 저 출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임병우 외, 2013).

방하남(2010)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인사관리제도에 왜 정년은퇴제도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업무나 기술들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고령 근로자들이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은퇴를 하도록 하는 면에서 정년은퇴제도에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기업, 기관의 현실에서는 강제적 정년은퇴 제도가 기정사실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년은퇴제도는 현대 산업사회가 낳은 특수한 제도라 하였다. 이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짧았던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 자체에 노동력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강제적 퇴직이나 법적 연령에 의한 정년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건강이 양호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가면서 현대 기업에서는 인력의 수요차원이나 공급차원 혹은 양측의 필요에 따라서 고령자의 인력관리상 정년은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고령자들의 생산성은 젊은 층보다 생산성이 낮은 반면 고용 임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높아져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커져가기 때문에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정년은퇴라는 제한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고령 인력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인사 관리상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기술발전은 고령자들의 적응력이 젊은 층

에 비해 떨어진다는 요소도 작용하여 기술변화나 발전이 빠른 산업에서는 정년은퇴에 의한 인력의 세대교체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방하남, 2010). 그러나 이런 강제 퇴직 제도에 의하여 퇴직을 한 퇴직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여력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제도에 의하여 외국의 은퇴시기보다 더 빨리 마쳐야 하는 것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도 이제 80세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때, 60세의 정년은퇴 이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큰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이른 나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해야 하는 나라이다.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60대 즈음에 주된 근로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정년은퇴제도는 한 개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 조기 노화를 수반하고 사회적으로도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고 숙련자들을 인구의 구조조정으로 이른 나이에 강제 퇴직시키는 우리나라의 정년은퇴제도에는 적지 않은 인간의 사회적 역할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2. 평생학습 참여동기

가. 평생학습

(1) 평생학습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써온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자한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

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은 학습자에게 피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시켜지는 개념이라면 학습은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성장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에는 생명의 자연스런 현상으로써 ‘성숙’이 있는가 하면 의도적인 노력으로 개인의 변화를 시도해야하는 ‘학습’이라는 개념도 있다. 교육은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으로서 학습을 원활하게 전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김한별, 2015).

평생학습은 자기계발, 사회 참여 및 시민성교육, 기술교육 등 보다 능동적인 개인차원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참여와 직업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을 말하고 또한 개개인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지원과정으로서의 인간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이 훈육, 주입, 변화 등을 중시하는 공식적·제도적 교육을 뜻한다면, 평생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의 자율적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은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학습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을 의미하는 용어의 개념으로는 평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으로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다루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병욱, 2017). 또한 전명수(2012)는 평생교육을 개인의 전 생애동안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고 급변하는 현대 생활양식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창의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보고 평생학습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학습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주도적인 선택과 참여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시키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문봉애, 2017). 평생학습자는 개인의 내면 속에 본질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내재하고 있어 평생학습자를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욕구와 평생학습의 역동적 능력을 통찰하고, 전 생애동안 다양한 생활세계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자기완성, 성취의 삶과 연계된 평생학습을 생활화하며 자기주도적 성장을 하는 삶의 주체자로 정의하고 있다(노현정, 2018).

따라서 학습자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더 중시하면서 최근에는 ‘평생교육’이란 말보다 “평생학습”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OECD(1996)의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 유네스코의 들로어(Delors, 1996) 등의 「우리속의 보물 : 학습」과 유럽의회 등지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대신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쓰여 그 이후 평생교육학계에서 평생교육이란 개념보다 평생학습이란 개념을 선호하여 사용해오고 있기에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김병욱, 2017).

이상과 같은 평생학습의 의미를 살펴볼 때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원리이자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한별, 2015).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을 정의해보면 개인의 전 생애 동안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형식과 비형식, 무형식 등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 학습의 기회로써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일체의 학습이라 할 것이다.

(2) 정년은퇴시기자의 평생학습의 필요성

매년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정년은퇴자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하여 우

리나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복지, 노인건강, 은퇴 후 소득 문제등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은퇴자들의 정년은퇴 이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것이냐에 대하여 많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제로 은퇴자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며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Madox(196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적절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 및 정신건강, 사기를 높일 수 있다 하고 사회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무력감이나 고립감이 생겨 생활의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잔여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작시키고 그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여 평생학습의 기회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동배 외, 2012).

노인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를 통해서도 노년기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다(김동배 외, 2012). 이호선(2012)은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노인교육의 측면에 빚대어 살펴보고 첫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생학습사회의 등장, 둘째는 급속한 사회의 변화로 사회의 모든 정보나 지식의 급속한 변화, 셋째는 가치관의 변화, 넷째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 다섯째는 노인 자신들의 욕구변화, 여섯째 평균수명의 연장 즉 고령화라 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은 노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고독감과 소외감 등을 없애주며 삶의 보람을 찾아 노후를 보람 있게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고, 특히 노인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적응 능력이 젊은이에 비

하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였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더 이상 발달을 기대할 수 없는 쇠퇴의 시기로 보았으나 오늘날 건강의 증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니며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대의 노인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에 얽매었으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적 사회적 지위도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들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아가 자기를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선태무 외, 2012).

노인의 평생학습은 사회적인 소외와 분리된 집단으로서의 노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학습이다. 노인 평생학습의 목적은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 및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다시 발휘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노후 인생의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평생학습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평생학습 참여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정영 외, 2013). 즉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노인세대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행복감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의 교육이 필요하며 평생학습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 노년 세대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현대생활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존감을 높이므로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더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의 평생학습은 직장인의 정년은퇴 이후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년은퇴자의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은퇴 이후 새로운 삶의 활력소로써 필요하다.

둘째, 인간의 발달 과업상 성공적인 자아통합감을 수행해야 할 노년기에 행복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셋째, 정년은퇴 이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여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건강한 정신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넷째, 오랜 생활 직장의 조직에서만 바라본 사회를 직장 조직 외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와의 유기적 공동체 네트워크의 참여 및 활동을 위하여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년기의 진입단계에 들어서서는 직장의 정년은퇴시기에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매년 수십만명씩 정년은퇴를 하는 현대에 노년의 활발한 삶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은퇴자의 평생학습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3) 평생학습자의 참여 저해요인

평생학습자의 참여 저해요인은 참여동기 만큼이나 그 내용을 알아야 그에 적절한 대응 전략이 마련된다. 이는 참여 동기만 파악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 아니라 참여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참여동기를 더 촉진 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여저해요인은 여러 가지 외적 상황이나 개인의 내적 상황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내적 동기는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또는 개인의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 학습자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외적 요인은 학습자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적 요인이 많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Cross(1981)는 교육의 참여 저해요인을 상황적 요인, 개인 특성 요인, 기관 및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상황적 요인은 개인이 삶의 일정한 시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통 생활 맥락 속에서 기인하는 조건들로 보았고 개인의 특성요인은 학습자 개인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기관 및 제도적 요인은 평생학습기관의 조건이나 프로그램 관련 제도적 요건의 특징이 학습자의 요구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참여 저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한별, 2015). 여기에 또한 사회적 환경으로 개인의 정보요인을 들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놓치므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언제 개설하여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부족과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한 참여저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인지적인 변화는 지능의 감퇴가 그 요인이다. 이러한 인지능력의 저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나타나고 개인차가 있지만 노년기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능이나 기억 능력의 감퇴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사고능력을 약화시키며 주어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뜨린다(김정영 외 2013).

노인평생교육 참여 장해요인을 연구한 한정란 외(2010)는 장해요인은 상황적 장해가 가장 높고 제도적 장해, 성향적 장해, 정보적 장해 순으로 나

타났고, 상황적 장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이고, 제도적 장애로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장소가 멀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성향적 장애로는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정보적 장애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라서, 참여방법을 몰라서, 교육기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등의 순으로 장애요인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 노인 평생교육에 참여의사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79.8%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노인평생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평생 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장애요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배우기에 나이가 너무 들었다’,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시간이 안 맞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성향적 장애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부일 외(2009)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저해 요인에 대하여 교육 비참여 약65명의 조사 결과 건강문제가 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정보를 알지 못하여서가 12.8%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서가 11.5%, 배우기에는 나이가 많아서가 10.0%, 시간이 없거나 업무가 바빠서가 10% 정도의 순서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의 참여 장애요인을 살펴 볼 때 정년은퇴시기를 전후 한 노년기에는 건강, 경제, 시간 등의 문제로 상황적 장애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발달 과정상 연령의 증가로 인한 노화가 건강의 악화로 기인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의욕이 많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평생학습

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나. 평생학습 참여동기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욕망을 지니는데 이러한 욕망을 흔히 욕구, 충동, 동기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동기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기는 인간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내면적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권석만, 2016). 이로 인한 동기는 세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지니는데 첫째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추진력, 즉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남승규, 2017).

평생학습의 주 대상인 성인학습자는 제도권의 학생과 달리 매우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있어야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은퇴시기를 전후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 대부분의 참여 동기는 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며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흥미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학습기회에 참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인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과는 달리 평생교육에 의무적인 참여 동기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성인은 의무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발적인 교육의 참여는 대체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과 같은 불가

피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성인들이 평생학습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희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김한별, 2015). 여러 가지 실제 생활이나 자신의 자기계발, 여가의 활용 등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할 때 그 참여 동기가 매우 강하고 학습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의 학습참여 동기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령기의 학생들처럼 일률적으로 그 동기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참여 요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Houle(1961)은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목표 지향적 학습자이고, 둘째 활동 지향적 학습자, 셋째 학습 지향적 학습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목표지향적 학습자는 성인의 생활 가운데 직접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게 필요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학습하려는 동기이다. 따라서 학습동기는 학습활동이 가지는 수단적 가치에 주목하는 형태의 부류라 할 것이다. 둘째 활동지향적 학습자는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데 만족감을 나타내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셋째 학습지향적 학습자는 학습내용의 활용가능성이나 학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보다 배우는 그 자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효능감 및 자기발전의 의미에 더 가치를 두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참여 동기는 한 개인의 특정한 동기 유형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상황적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 학습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를 잘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김한별, 2015).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성인에 있어서는 성인 개인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iller(1967)는 메슬로의 욕구위계 이론으로부터 학습자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구별된다는 가정하에 하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은 자아실현의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반면 기본적인 욕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은 기본욕구 충족을 보조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김한별, 2015).

또한 Rubenson은 학습자란 보다 우수한 성취 수준을 보임으로써 두각을 나타내고자하는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학습자의 이러한 성취 지향적 동기가 강할 때 교육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의 기대요소와 가치요소가 모두 긍정적일 때 또는 긍정적일수록 성취지향적 동기가 강화되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oshier(1973)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 참여 동기가 나타난다고 한다.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교육 환경 요소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교육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중도 탈락도 쉽게 나타난다고 한다. Cross(1981)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평가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상호작용하는 데서 시작하고 가치판단이란 교육활동에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성취 수준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자신의 능력이 학습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학습기회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학습자가 학습활동에서 다루는 목표와 내용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조건에 유용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성공적으로 학습활동의 참여를 완수하고 만족스러운 성취수준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긍정적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학습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김한별, 2015).

Knowles(1980)는 성인교육 참여 동기 요인을 직업적인 재교육, 새로운 직업을 위한 측면의 경제적 측면, 개인적인 목적의 만족, 보상교육과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키고자하는 개인적 측면, 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위한 훈련과 재훈련이 필요한 직업적인 측면,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 태도 및 습관들에 대한 적응의 사회적인 측면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전명수, 2012). 또한 이부일 외(2009)의 논문에 정리된 해외학자들의 참여 동기 유형을 보면 Burgess는 목표성취동기로 개인적 목표성취동기, 사회적 목표성취동기로 구분하였고, 또한 현상도피동기, 활동 참여 동기, 지적성취동기, 종교적 목표성취동기, 공식적 자격획득동기로 구분하였다. Moration & Smart는 외부적 기대와 직업적 향상, 사회적 관계, 사회적 복지, 도피와 자극, 인지적 흥미 등으로 구분하였고 Boshier(1973)는 가족 연대감, 직업적 향상, 상호이해증진, 사회적 관심, 사회적 자극, 교육적 준비, 인지적 흥미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 동기 유형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자들의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의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를 살펴본 김미란(2013)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교육 참여자들은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 등의 신체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동기, 심리적 동기, 자기개발 동기, 휴식적 동기, 지적 동기, 그리고 유능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유혜엽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요인으로 첫째, 학습에 대한 계속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둘째, 인간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

용하고 있었고 셋째,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넷째, 일과 경제적 자립 욕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평생교육의 참여경험과 이유에 대한 양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계발, 지식과 교양습득, 배우는 즐거움과 보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가 약 76.4%로 나타나 참여하는 동기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성인 발달 학자들은 성인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회 심리적 위기나 발달과업 등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김정영 외, 2013).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로 보기보다,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그들의 노화로 인한 장애보다는 계발해야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참여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양희, 2012).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참여 동기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열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Houle(1961)의 유형 구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에의 참여 동기는 개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이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곧 개인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면에서 참여 동기 유형 세 가지 형태를 근거로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3. 삶의 행복감

가. 삶의 행복감의 정의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려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을 마감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행복감은 삶의 질과 만족감을 매우 높게 끌어 주기도 하고 인생의 가치 또한 매우 고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행복감은 특히 사회적 역할을 다 마치고 정년은퇴로 직업과 직장을 떠나 은퇴 이후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더욱 필요하고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아직 명확한 이해의 접근을 보지 못하였고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 더구나 행복은 주관적인 체험과 사유에 근거한 개인적인 경험의 주장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남승규, 2017).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나 근거도 부족하여 엄청난 과학적 발전에 따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개인적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권석만, 2016).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어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고통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려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행복’은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에 접근하도록 하면 적어도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2002)이 제시하는 세 가지 측면의 요건은 이러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즐거운 삶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으로 과거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통해 만족감과 흡족함을 느끼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의 적극적인 체험과 몰입을 통해서 즐거움과 유쾌함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하여 희망과 기대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둘째로는 적극적인 삶이다. 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강점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아내어 이를 계발하여 일이나 사랑, 자녀양육,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에 잘 활용하는 가운데 발전되는 것이라 한다.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행위로부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삶을 말한다.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지만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 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한다. Seligman(2002)은 이처럼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감정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권석만, 2016).

심리학자 Abraham Maslow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욕구는 어느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그 욕구는 사라지고 계속하여 더 높은 단계로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행복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

인들이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성찰을 통해 지혜가 계발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덕이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였다. 즉,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입장을 말한다(김명소 외, 2002).

행복에 대한 관점은 크게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이고 좋은 삶이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복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 상태라는 생각이다. 반면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하는 것’이다. 좋은 삶이란 진정한 자기를 발현하는 것이고, 성격적 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남승규, 2017). 행복은 삶의 질,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복의 정의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현순, 2010).

행복감의 개념을 심리적, 주관적, 정서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심리적 행복감이란 개인 자신의 행복감이나 생활의 만족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복은 단지 행복한 순간들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주관적 행복감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현순, 2010). 첫째,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적조건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둘째, 행복은 부정적 요인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 김현순(2010)은 정서적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정서적 평가를 말하고, 행복에서 정서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대부분의 순간 동안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정서가 사건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람직한 사건들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불쾌성보다 쾌정서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남승규(2017)는 행복의 심리적 이론을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쾌락주의적 관점에서는 욕망충족이론, 목표이론, 비교이론 및 적응대치이론이 있고,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보면 웰빙이론,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강점과 덕목이론 등이 있다 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욕망충족 이론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은 다양한 욕망을 지니고 있고 이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성적 욕구와 공격성 욕구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 보았으며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가지의 욕구로 구분하였는데, 피라미드 형태로 하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구분하였다. 또한 욕망을 동기와 혼용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동기의 유형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고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동기는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심리적 성장과 자기실현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동기의 충족은 행복에 필수적이다(권석만, 2016).

(2) 비교 이론

비교이론 또는 괴리이론(discrepancy theory)은 행복에 대한 인지적 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교기준들 보다 우월한 방향으로 차이가 클수록 행복을 많이 느낀다. 가장 주요한 비교기준은 다른 사람, 과거의 삶, 이상적 자기상, 지향하는 목표 등이다(허승연, 2009).

(3) 목표 이론

목표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목표에는 접근목표와 회피목표가 있다. 접근목표(approach goals)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 반면, 회피목표(avoidance goals)는 위험, 곤란, 공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근목표가 회피목표보다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권석만, 2016).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인간의 내재적 동기와 잘 부합할 때 행복이 증가하며 자기수용, 긍정적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 신체적 매력,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며,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거나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Sirgy, 1998). 그 이유는 외재적 가치인 재물, 미모, 지위, 명성보다 인간의 내재적 욕구인 유대감, 친밀감, 자기수용을 충족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허승연, 2009).

(4) 적응과 대처 이론

적응과 대처이론에 의하면 쾌락을 주는 것은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쾌락을 점점 덜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적응(adapt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결혼을 하면 불편해 할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은 금방 익숙해진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느새 가난한 삶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그만큼 인간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대처(coping)이다. 대처에는 낙관성이 중요하다. Deiner 등(1999)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다.” 미래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는 기분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만든다. 또한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감이 높으며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희망과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권석만, 2016).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어서의 비교기준, 그리고 개인의 가치 중심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 성취감은 지속되기 보다는 금방 적응하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충족시켜 적응하게 되고 이런 순환과정의 특징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감에 대하여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행복감이란 개인의 심리상태를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전양자, 1991). 이는 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는 상태로도 규정할 수 있다. 권석만(2016)은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첫

째는 상향이론으로 행복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향이론으로 행복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성향 등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여러 가지(자기의 현재 욕구, 과거의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 등) 표준과의 격차와 역 상관을 이룬다. 자신의 긴장이 해소되고 생물학적·심리학적 욕구가 충족되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또 긴장 해소이론에 있어 행복감에는 욕구충족과 목적달성이 수반된다는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간절히 바랐던 욕구가 성취된 후에 오는 최종적 심리상태라고 본다(박난영, 2008).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심리적 이론 및 형성과정, 심리학자,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에 접근해 볼 때 다양한 관점과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행복은 정해진 하나의 일방적인 방향과 느낌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만족감 및 심리상태에 의한 복합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 가지의 행복한 느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행복감이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경험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이고 심리적 행복감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안녕과 삶의 의미, 목적의 성취 등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며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삶의 행복감의 구성요인

삶의 행복감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발견해나가는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개별 요인들보다 심리적 또는 성격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로 낙관성, 자존감, 외향성, 통제감, 긍정적인 인간관계, 인생의 목적의식, 자아실현, 몰입감, 쾌락적즐거움 등이 알려지고 있다(권석만, 2016).

(1) 낙관성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 요인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실제 미래의 성취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삶의 적응을 돕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권석만(2016)은 이러한 낙관성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미래 일들이 긍정적으로 잘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는 기질적 낙관성이고, 둘째는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희망이 있고, 셋째로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는 설명 방식이 있다 하여 낙관성을 주관적 안녕의 성격요인으로 보았다.

(2) 자신감 및 자존감

자신감은 우리 자신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존감은 주관적 안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와 우호적 태도를 의미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유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지닌다.

(3) 외향성

인간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은 외향성-내향성이다. 외향성은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 즉 주된 관심사가 외부환경으로 지향되는 성향인 반면, 내향성(introversion)은 관심의 방향이 자신의 내면적 경험으로 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성이 높고 활동적이며 정서적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외향성-내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적 성향이라고 Jung은 주장했다(권석만, 2016).

안현의 외(2006)는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기를 좋아하고, 쾌활하고 명랑하며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을 잘하며, 열성적이고 낙천적인 반면 외향성 점수가 낮은 사람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싫어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며, 혼자 지내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한다. 하지만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상냥하며 활기가 넘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외향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불행하거나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이는 외향성이 인간관계의 한 요인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4) 통제감

통제감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내적통제 소재를 지닌 사람들이 외적 통제 소재를 지닌 사람들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관적 안녕 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 허보연(2005)은 통제감은 구체적,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구체적 통제감이란 구체적 상황에서 지각된 통제감으로 직면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 통제감이란 전반적 상황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총체적 통제감으로 상황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지닌 개인의 인성적 특성을 반영한다 하여 통제감을 행복의 구성요

인으로 보았다.

(5) 긍정적인 인간관계

긍정적 인간관계는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권석만, 2016)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Diener와 Seligman(2002)은 대학생 중 행복도가 가장 높은 10%의 집단을 대상으로 행복감이 왜 높은지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 하여 인간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6) 인생의 목적의식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행복(주관적 안녕)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인생의 목적의식은 실증적 연구에서 흔히 종교성으로 측정되었고, 종교는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종교의식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다(권석만, 2016). 하지만 목적의식은 삶의 존재 의미를 특정한 종교에만 국한 할 것은 아니다. 삶의 목표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삶에 매우 긍정적 요소로 반영되어 삶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될 것이다.

(7)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에게 내재해있는 재능이나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거나 이용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에서 자아실현은 자아성취와 자아통합감을 통하여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매우 필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윤재원, 2005).

(8) 몰입감

몰입은 의미가 직관적이고 개인과 학문 영역에 따라 아직까지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른 정의와 측정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떤 일관되고 공통된 개념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개념이다(이현정,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몰입을 평소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깊이 파고들거나 집중한다는 의미로 보고자 한다.

(9) 쾌락적 즐거움

대개 능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정서적 반응 중의 하나가 쾌락적 즐거움 또는 감정 호전현상이다. 즉 이는 욕구 충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윤택한 감정의 도취감, 만족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박태준 외, 2004). 신체활동을 통해 활력이 증대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해인, 2013).

이상과 같은 행복감의 구성요인 외 행복감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즐거움, 만족감, 자아 존중감, 안녕감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은 건강상의 이익이나 생리학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프로그램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과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강현숙 외, 2005).

권해인(2013)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낙관성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

로 여기는 자신감은 행복의 하위영역인 내향적 행복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관계적 행복감에 포함되며, 심리적 에너지를 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외향성은 외향적 행복감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통제감은 자기조절 행복감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으로 보았고 고정임(2018)은 자아수용 (자신의 능력이나 처해있는 상황을 잘 인식하여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태도), 대인관계의 만족(집단생활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형성되는 심리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 중 협력적이며 정적인 관계), 자율성(주변의 부당한 강압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함), 삶의 목적(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의사결정의 기준), 개인성장(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의 5개 측면으로 보았다.

이러한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살펴볼 때 행복감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도 어렵지만 각 개인이 느끼는 구성요인 또한 다양하다 할 것이다. 행복감을 느끼는 심리적 요인이나 그에 따른 구성요인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권해인(2013)이 활용한 다섯 가지의 요인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을 삶의 행복감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진행하고자 한다.

다. 정년은퇴 이후 삶의 행복감

개인의 정년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근래 주로 정년은퇴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들이 살아온 지난 과거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 될 것이다.

임은기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행복 요인과 함께 왜 그 요인

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그 요인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건강하지 않으므로 자식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심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까 걱정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설명하는 이유들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노후를 행복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삶의 만족, 삶의 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심리적 요인은 심리적 건강으로 표현되고 심리적 건강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긍정적 의미로는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으로 구성되어진다(김사라 외, 2016).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도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노인의 학력, 건강상태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들이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받은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들은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사라 외, 2016).

미국의 심리학교수 Diener(2001)는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의 행복의 정의를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인 안녕 즉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안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행복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또한 심리학자 Shahar는 즐거움과 의미 있음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으로 행복은 단순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즐거운 감정이 내포되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여러 감정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지만 긍정적인 감정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느끼는 역동적인 감정이라 하였다(고정임, 2018). 특히 노년기에 있는 노인의 행복감이란 긍정적 정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년은퇴 이후의 삶의 행복감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 삶의 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관심으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낙관적, 자신감, 통제감, 자아실현, 몰입감, 인간관계 등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노화로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개인이 느끼고 추구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관계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잠재적 욕구 또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는 내면적인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삶의 행복감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만족감 또는 심리적인 주관적 안녕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과 행복감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인탁(2013)은 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전체 참여 동기는 학습자의 행복감에 15.5%로 나타났고, 참여 동기의 하위변인은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 순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동기 하위변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외국어 과정은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순으로, 직업능력 과정은 학습지향으로, 인문교양 과정은 활동지향 동기, 건강·여가 과정은 목표지향, 문화예술 과정은 목표지향, 학력보완 과정은 활동지향 동기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허영주(2016)의 연구결과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화생활교육과 취·창업교육은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관계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이것은 문화생활교육 중심의 노인평생교육은 여가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취·창업교육은 직업 및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수입 창출로 연결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하여 노인세대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영화(2005)는 노인들이 대학교육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고, 둘째 소외감과 고립감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은 학력보완이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 동기가 높고, 직업능력 프로그램이나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다른 프로그램보다 운동·여가 프로그램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하는 동기로 이러한 동기를 충족하였을 때 자신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연구는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와 ‘삶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두 영역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삶의 형태와 노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고, 삶의 행복감은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행복감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삶의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성공적 노화 등에 대한 개념을 삶의 행복감의 개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가.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관한 고찰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고,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노년기에 있는 노인 및 성인학습자들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와 자아통합감 등에 미치는 영향(권해

인, 2013; 김미란, 2013; 박영숙, 2003; 김정영, 2013; 안화순 외, 2018)과 노인의 평생교육참여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선재, 2016; 전기창 외, 2009; 최순자, 2015)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평생학습참여동기가 노년의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 등에 매우 많은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참여동기는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는 삶의 변화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향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적 노화가 강해지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김동배 외, 2012; 서명환, 2011; 김종식 외, 2014). 안효권(2018)은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자살생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평생교육참여와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는 자살생각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희망과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삶의 질은 평생교육 참여와 희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에 매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정년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세밀한 프로그램이나 성공적 노화 또는 노인의 조기노화를 예방하고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노년의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은퇴 이후의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영향 등만을 예상할 뿐 은퇴이전의 대상들과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해 본 연구들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인학습자나 노인에게서는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평생학습 활동에 매우 중요한 참여 요인이다.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성공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동기는 행복감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자를 노년기의 진입단계에 있는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이들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삶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삶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은 우선 행복감에 미치는 구성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들도 매우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태연(2008)은 노년학회에서 30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고찰하고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본 결과 안녕감은 사회적(사회적 원조, 경제적 안정, 환경적 안녕, 주거환경), 심리적(주관적 행복도, 고독감, 생활만족도), 신체적(건강상태, 일상적 활동, 영양상태) 안녕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고, 이러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건강, 교육수준, 경제,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사회활동, 연령, 운동 등이 주요인이라 하여 매우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복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노년기의 행복프로그램을 연구한 채경선(2017)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년기의 참여자들은 행복 프로그램에서 인생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돌아보며, 일상에서 주는 삶의 기쁨과 긍정성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노년기 자신의 삶에 대한 즐거움, 의미, 적극적 삶을 통해 삶에 대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윤명숙 외(2012)는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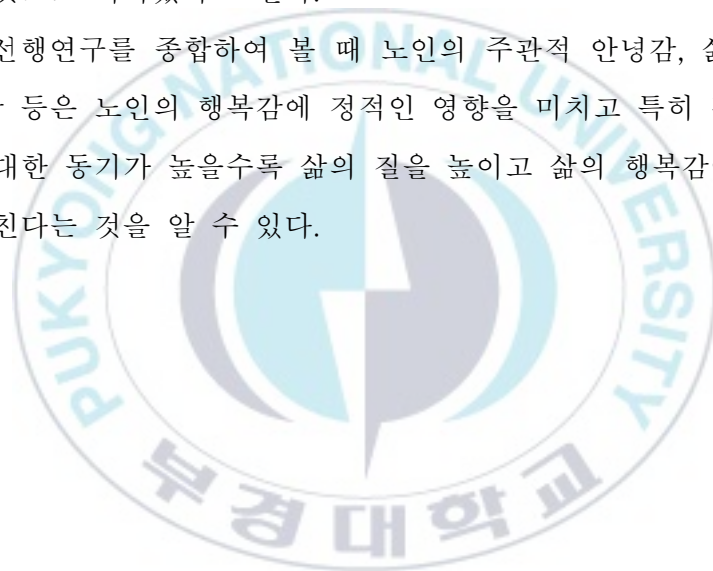
을 연구한 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행복의 차이 분석은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고, 결혼관계에 만족하고, 직업과 종교가 있는 경우, 부채가 적은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행복수준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경제 상태와 행복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노후의 인생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도구개발 연구를 한 오여경(2011)은 성격 특성과 늙어감의 행복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신경증이 강할수록 늙어 감을 인식하지 않고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과 성실성이 강할수록 늙어감을 행복하게 인식하였다 한다. 또한 늙어감을 행복하게 여길수록 성공적 노화, 삶의 질, 주관적 행복 정도가 높았다고 한다. 이는 노년기의 행복을 위하여 정년은퇴시기에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감 추구에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김태중 외(2015)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높고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심리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행복감은 학습몰입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특히, 학습몰입에는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 자신이 지각한 심리적 행복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

다고 한다. 박은희(2017)는 평생학습 참여가 여성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여성 성인학습자 참여 동기의 활동지향 동기, 목표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는 모두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동기의 활동지향 동기, 목표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는 모두 행복감의 변화상황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지향 동기, 목표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가 높을수록 행복감의 변화상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은 노인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평생학습 참여활동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행복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 김해시 및 타 지방에 위치한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평생학습자들이다. 그 중 은퇴시기 연령에 해당하는 55세~65세의 연령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약7주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방법은 오프라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210명이었다. 응답 내용 중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20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03)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7
	여	76
연령	55세~59세	106
	60세~65세	97
정년은퇴 여부	정년은퇴	80
	재직중	123
퇴직 후 기간 (퇴직자만 응답)	3년 미만	40
	3년 이상	40
퇴직 잔여기간 (재직중인자만 응답)	3년 미만	52
	3년 이상	7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
	대학교 졸업	106
	대학원 이상 졸업	26
직업군	공무원	94
	정부공공기관	18
	교원/정부기업체	15
	일반 민간기업체	34
	기타	4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
	200~300만원 미만	33
	300~400만원 미만	34
	400~500만원 미만	48
	500만원 이상	58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62.6%, 여자 37.4%로 남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55세~59세가 52.2%, 60세~65세가 47.8%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 여부로는 정년은퇴를 한 대상자들이 39.4%, 재직중인 대상자들이 60.6%로 나타났다. 정년은퇴를 한 대상자들 중 퇴직 후 기간은 3년 이상이 50.0%, 3년 미만이 50.0%로 나타났다. 정년은퇴 전인 대상자들 중, 정년은퇴까지 잔여기간은 3년 이상이 57.4%, 3년 미만이 42.6%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0%, 대학원 이상 졸업 12.8% 순이었다. 직업군으로는 공무원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20.7%, 일반 민간기업체 16.7%, 정부공공기관 8.9%, 교원/정부기업체 7.4%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500만원 미만 23.6%, 300~400만원 미만 16.7%, 200~300만원 미만 16.3%, 200만원 미만 4.4% 순이었다.

2. 측정도구

가. 평생학습 참여동기 척도

정년은퇴시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Houle(1961)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운실(1986)이 제작하고 전명수(2012)가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성인교육의 참여 동기를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지향은 학습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구성, 유지,

개선, 확대 등에 의미를 두고, 목표지향은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학습지향은 새로운 지식이나 배우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학습 참여동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인용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전명수(2012)의 연구에서 활동지향형이 .89, 목표지향형이 .74, 학습지향형이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 하위요인 중 활동지향형의 Cronbach's α 값은 .913, 목표지향형의 Cronbach's α 값은 .805, 학습지향형의 Cronbach's α 값은 .893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값을 보였으며, 참여 동기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4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Cronbach's α 계수가 .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Moss et al, 1998). 평생학습 참여 동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평생학습 참여 동기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활동지향	19	1 ~ 19	.913
목표지향	6	20 ~ 25	.805
학습지향	8	26 ~ 33	.893
전체	33		.948

나. 삶의 행복감 척도

성인학습자의 삶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환(1988)이 개발한 ‘긍정적인 인지-정서적 상태 척도’를 근본으로 이동현(2004)이 사용한 20문항의 척도를 오은정(2009)이 16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총16개 문항으로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행복감 척도의 인용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오은정(2009)의 연구에서 자아실현이 .908, 자신감이 .903, 몰입감이 .825, 쾌락적 즐거움이 .6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결과, 삶의 행복감 하위요인 중 자아실현의 Cronbach’s α 값은 .829, 자신감의 Cronbach’s α 값은 .861, 몰입감의 Cronbach’s α 값은 .823, 쾌락적 즐거움의 Cronbach’s α 값은 .929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값을 보였으며, 행복감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5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삶의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삶의 행복감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자아실현	2	1 ~ 2	.829
자신감	5	3 ~ 7	.861
몰입감	4	8 ~ 11	.823
쾌락적 즐거움	5	12 ~ 16	.929
전체	16		.952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지를 테이터 코딩한 후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항목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구성유형에 대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동기에 대한 차이와 삶의 행복감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참여 동기는 평균 3.42점으로 나타나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참여 동기는 보통(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 하위변인 중 학습지향(평균 3.66점)이 가장 높았고, 활동지향(3.24점)이 가장 낮았다. 종속변인인 삶의 행복감은 평균 3.56점으로 나타나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삶의 행복감은 보통(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쾌락적 즐거움(3.63점)이 가장 높았고, 자아실현(3.47점)이 가장 낮았다.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 변인	참여 동기	활동지향	203	1	5	3.24	.687
		목표지향	203	1	5	3.37	.794
		학습지향	203	1	5	3.66	.790
		전체	203	1	5	3.42	.686
종속 변인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203	1	5	3.47	.855
		자신감	203	1	5	3.56	.777
		몰입감	203	1	5	3.57	.787
		쾌락적 즐거움	203	1	5	3.63	.846
		전체	203	1	5	3.56	.731

2. 일반적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성별	N	M	SD	t
참여 동기	활동지향	남자	127	3.30	1.595
		여자	76	3.14	
	목표지향	남자	127	3.33	1.559
		여자	76	3.44	
	학습지향	남자	127	3.64	-.998
		여자	76	3.68	
	전체	남자	127	3.42	-.970
		여자	76	3.42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남자	127	3.51	.890
		여자	76	3.40	

자신감	남자	127	3.55	.786	-.125
	여자	76	3.57	.767	
몰입감	남자	127	3.51	.838	-1.398
	여자	76	3.67	.690	
쾌락적 즐거움	남자	127	3.60	.856	-.664
	여자	76	3.68	.832	
전체	남자	127	3.54	.744	-.340
	여자	76	3.58	.713	

나.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연령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생학습자의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자신감은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65세가 55세~59세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연령대	N	M	SD	t
참여 동기	55세~59세	106	3.18	.677	-1.342
	60세~65세	97	3.31	.695	
	55세~59세	106	3.35	.791	-.442
	60세~65세	97	3.40	.801	
	55세~59세	106	3.62	.728	-.691
	60세~65세	97	3.70	.855	

삶의 행복감	전체	55세~59세	106	3.38	.652	-.883
		60세~65세	97	3.47	.722	
	자아실현	55세~59세	106	3.39	.802	-1.377
		60세~65세	97	3.56	.907	
	자신감	55세~59세	106	3.45	.747	-2.174*
		60세~65세	97	3.68	.795	
	몰입감	55세~59세	106	3.52	.742	-.934
		60세~65세	97	3.63	.835	
	쾌락적 즐거움	55세~59세	106	3.53	.784	-1.776
		60세~65세	97	3.74	.901	
	전체	55세~59세	106	3.47	.668	-1.747
		60세~65세	97	3.65	.787	

* $p<.05$

다. 정년은퇴 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정년은퇴 여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정년은퇴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생학습자의 삶의 행복감은 정년은퇴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정년은퇴한 자가 재직중인 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아실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년은퇴 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정년은퇴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퇴직여부	N	M	SD	t
참여 동기	활동지향	정년은퇴	80	3.34	1.574
		재직	123	3.18	
	목표지향	정년은퇴	80	3.39	.207
		재직	123	3.36	
	학습지향	정년은퇴	80	3.74	1.240
		재직	123	3.60	
	전체	정년은퇴	80	3.49	1.080
		재직	123	3.38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정년은퇴	80	3.53	.732
		재직	123	3.43	
	자신감	정년은퇴	80	3.71	2.284*
		재직	123	3.46	
	몰입감	정년은퇴	80	3.73	2.327*
		재직	123	3.47	
	쾌락적 즐거움	정년은퇴	80	3.84	2.824**
		재직	123	3.50	
	전체	정년은퇴	80	3.70	2.262*
		재직	123	3.47	

* $p<.05$, ** $p<.01$

라. 정년은퇴 후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정년은퇴 한 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정년은퇴 후 기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정년은퇴 후 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퇴 후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정년은퇴 후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80)

구분	퇴직기간	N	M	SD	t
참여 동기	활동지향	3년 미만	3.32	.690	-.199
		3년 이상	3.35	.708	
	목표지향	3년 미만	3.38	.711	-.115
		3년 이상	3.40	.900	
	학습지향	3년 미만	3.70	.832	-.451
		3년 이상	3.78	.840	
	전체	3년 미만	3.47	.689	-.283
		3년 이상	3.51	.745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3년 미만	3.51	.772	-.124
		3년 이상	3.54	1.015	
	자신감	3년 미만	3.68	.720	-.382
		3년 이상	3.75	.800	
	몰입감	3년 미만	3.62	.818	-1.258
		3년 이상	3.84	.781	
	쾌락적 즐거움	3년 미만	3.76	.863	-.754
		3년 이상	3.91	.915	
	전체	3년 미만	3.64	.729	-.675
		3년 이상	3.76	.809	

마.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정년은퇴 잔여 기간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122)

구분	잔여기간	N	M	SD	t
참여 동기	활동지향	3년 미만	52	3.21	.759
		3년 이상	70	3.16	.620
	목표지향	3년 미만	52	3.31	.839
		3년 이상	70	3.39	.754
	학습지향	3년 미만	52	3.63	.844
		3년 이상	70	3.58	.703
	전체	3년 미만	52	3.38	.740
		3년 이상	70	3.38	.617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3년 미만	52	3.53	.860
		3년 이상	70	3.38	.805
	자신감	3년 미만	52	3.43	.904
		3년 이상	70	3.47	.677
	몰입감	3년 미만	52	3.41	.757
		3년 이상	70	3.51	.775
	쾌락적 즐거움	3년 미만	52	3.49	.807
		3년 이상	70	3.49	.794
	전체	3년 미만	52	3.47	.736
		3년 이상	70	3.47	.671

바.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최종학력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최종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참여 동기	활동 지향	고등학교 이하	71	3.22	.158	-
		대학교 졸업	106	3.27		
		대학원 이상	26	3.20		
	목표 지향	고등학교 이하	71	3.28	.702	-
		대학교 졸업	106	3.42		
		대학원 이상	26	3.40		
	학습 지향	고등학교 이하	71	3.64	.048	-
		대학교 졸업	106	3.67		
		대학원 이상	26	3.64		
	전체	고등학교 이하	71	3.38	.253	-
		대학교 졸업	106	3.46		
		대학원 이상	26	3.41		
삶의 행복감	자아 실현	고등학교 이하	71	3.42	1.127	-
		대학교 졸업	106	3.55		
		대학원 이상	26	3.29		
	자신감	고등학교 이하	71	3.50	.311	-
		대학교 졸업	106	3.59		
		대학원 이상	26	3.61		
	몰입감	고등학교 이하	71	3.53	.361	-
		대학교 졸업	106	3.62		
		대학원 이상	26	3.51		
	쾌락적 즐거움	고등학교 이하	71	3.66	.162	-

전체	대학교 졸업	106	3.63	.787	.324	-
	대학원 이상	26	3.55	1.016		
	고등학교 이하	71	3.53	.783		
	대학교 졸업	106	3.60	.671		
	대학원 이상	26	3.49	.833		

* $p<.05$, ** $p<.01$

사. 직업군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직업군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직업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생학습자의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쾌락적 즐거움은 직업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군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직업군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참여 동기	공무원	94	3.28	.623	.359	-
	정부공공기관	18	3.23	.801		
	교원/정부기업체	15	3.32	.632		
	일반 민간기업체	34	3.25	.864		
	기타	42	3.14	.651		
	공무원	94	3.39	.744	.950	-
	정부공공기관	18	3.39	.965		
	교원/정부기업체	15	3.69	.623		
	일반 민간기업체	34	3.33	.913		
	기타	42	3.23	.776		

학습지향	공무원	94	3.67	.651	1.444	-
	정부공공기관	18	3.42	.860		
	교원/정부기업체	15	3.99	.709		
	일반 민간기업체	34	3.74	.945		
	기타	42	3.54	.913		
전체	공무원	94	3.45	.596	.885	-
	정부공공기관	18	3.35	.816		
	교원/정부기업체	15	3.67	.556		
	일반 민간기업체	34	3.44	.855		
자아 실현	기타	42	3.30	.708	1.253	-
	공무원	94	3.43	.707		
	정부공공기관	18	3.33	1.029		
	교원/정부기업체	15	3.80	.841		
	일반 민간기업체	34	3.65	.989		
자신감	기타	42	3.37	.957	2.236	-
	공무원	94	3.50	.715		
	정부공공기관	18	3.46	.894		
	교원/정부기업체	15	4.03	.878		
	일반 민간기업체	34	3.72	.814		
삶의 행복감	기타	42	3.43	.748	1.102	-
	공무원	94	3.55	.729		
	정부공공기관	18	3.37	.808		
	교원/정부기업체	15	3.87	.676		
	일반 민간기업체	34	3.69	.928		
몰입감	기타	42	3.50	.814	2.696*	N. S
	공무원	94	3.57	.752		
	정부공공기관	18	3.49	.849		
	교원/정부기업체	15	4.23	.810		
	일반 민간기업체	34	3.78	.965		
쾌락적 즐거움	기타	42	3.50	.890	2.144	-
	공무원	94	3.51	.627		
	정부공공기관	18	3.41	.787		
	교원/정부기업체	15	3.98	.748		
	일반 민간기업체	34	3.71	.873		
전체	기타	42	3.45	.755		
	공무원	94	3.45	.755		

* $p < .05$

아. 연금수령 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연금수령 여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연금수령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연금수령 여부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수령여부	N	M	SD	t
참여 동기	활동지향	수령	166	3.28	1.793
		미수령	37	3.06	
	목표지향	수령	166	3.39	.892
		미수령	37	3.27	
	학습지향	수령	166	3.67	.329
		미수령	37	3.62	
	전체	수령	166	3.45	1.067
		미수령	37	3.31	
삶의 행복감	자아실현	수령	166	3.48	.192
		미수령	37	3.45	
	자신감	수령	166	3.57	.445
		미수령	37	3.51	
	몰입감	수령	166	3.56	-.274
		미수령	37	3.60	
	쾌락적 즐거움	수령	166	3.60	-1.003
		미수령	37	3.76	
	전체	수령	166	3.55	-.189
		미수령	37	3.58	

자. 월평균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분석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에 대해 평생학습자의 월평균 소득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은 월평균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차이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월평균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차이(N=203)

구분	최종학력	N	M	SD	F	Scheffe
참여 동기	활동 지향	200만원 미만	30	3.19	.780	-
		200~300만원 미만	33	3.36		
		300~400만원 미만	34	3.09		
		400~500만원 미만	48	3.25		
		500만원 이상	58	3.29		
	목표 지향	200만원 미만	30	3.26	.221	-
		200~300만원 미만	33	3.36		
		300~400만원 미만	34	3.43		
		400~500만원 미만	48	3.40		
		500만원 이상	58	3.38		
학습 지향	활동 지향	200만원 미만	30	3.74	.235	-
		200~300만원 미만	33	3.68		
		300~400만원 미만	34	3.58		
		400~500만원 미만	48	3.61		
		500만원 이상	58	3.69		
	목표 지향	200만원 미만	30	3.39	.131	-
		200~300만원 미만	33	3.47		
		300~400만원 미만	34	3.37		
		400~500만원 미만	48	3.42		
		500만원 이상	58	3.45		

삶의 행복감	자아 실현	200만원 미만	30	3.42	1.130	.818	-
		200~300만원 미만	33	3.67	.863		
		300~400만원 미만	34	3.32	.960		
		400~500만원 미만	48	3.53	.740		
		500만원 이상	58	3.42	.706		
	자신감	200만원 미만	30	3.68	.920	.486	-
		200~300만원 미만	33	3.67	.920		
		300~400만원 미만	34	3.52	.786		
		400~500만원 미만	48	3.51	.657		
		500만원 이상	58	3.50	.707		
	몰입감	200만원 미만	30	3.63	.907	.542	-
		200~300만원 미만	33	3.65	.946		
		300~400만원 미만	34	3.57	.745		
		400~500만원 미만	48	3.63	.682		
		500만원 이상	58	3.45	.740		
	쾌락적 즐거움	200만원 미만	30	3.81	1.026	1.188	-
		200~300만원 미만	33	3.82	.989		
		300~400만원 미만	34	3.49	.871		
		400~500만원 미만	48	3.62	.736		
		500만원 이상	58	3.52	.713		
	전체	200만원 미만	30	3.63	.908	.691	-
		200~300만원 미만	33	3.70	.868		
		300~400만원 미만	34	3.48	.768		
		400~500만원 미만	48	3.57	.608		
		500만원 이상	58	3.47	.615		

* $p < .05$

3. 변인 간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삶의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삶의 행복감($r=.793$, $p<.001$)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은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참여 동기
활동지향	1							
목표지향	.704***	1						
학습지향	.699***	.781***	1					
자아실현	.618***	.654***	.722***	1				
자신감	.566***	.599***	.671***	.694***	1			
몰입감	.562***	.637***	.711***	.678***	.749***	1		
쾌락적 즐거움	.552***	.650***	.731***	.690***	.761***	.840***	1	
참여 동기	.874***	.921***	.919***	.736***	.678***	.706***	.716***	1
삶의 행복감	.642***	.710***	.793***	.860***	.891***	.910***	.920***	.793***

*** $p<.001$

4.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2.9%($R^2=.62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40.476$, $p=.000$). 평생학습 참여 동기($\beta=.793$, $p=.000$)는 삶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665	.160			4.162***
참여 동기	.845	.046	.793		18.452***
$R^2=.629$ $F=340.476^{***}$					

*** $p<.001$

5. 평생학습 참여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상일 때 심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김두섭 외, 2008).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5.5%($R^2=.65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6.214$, $p=.000$). 학습지향($\beta=.566$, $p=.000$)과 목표지향($\beta=.188$, $p=.009$)은 삶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은 삶의 행복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학습지향의 영향력이 더 큼을 의미한다.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666	.157		4.230	
활동지향	.122	.066	.115	1.847	2.236
목표지향	.173	.066	.188	2.636**	2.930
학습지향	.523	.065	.566	8.006***	2.884
R ² =.655 F=126.214***					

*** $p < .001$

6.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

가.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시기 평생 학습자의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5.5%($R^2=.555$)로 나타났으며,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2.737$, $p=.000$). 학습지향($\beta=.475$, $p=.000$), 활동지향($\beta=.172$, $p=.000$), 목표지향($\beta=.162$, $p=.000$) 모두 자아실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세 가지(학습지향, 활동지향, 목표지향)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308	.209		1.468	
활동지향	.214	.088	.172	2.431*	2.236
목표지향	.174	.087	.162	2.000*	2.930
학습지향	.514	.087	.475	5.918***	2.884
$R^2=.555$ $F=82.737^{***}$					

* $p<.05$, *** $p<.001$

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

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7.5%($R^2=.475$)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9.919$, $p=.000$). 학습지향($\beta=.465$, $p=.000$)은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과 목표지향은 자신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910	.207		4.401	
활동지향	.168	.087	.148	1.928	2.236
목표지향	.128	.086	.131	1.492	2.930
학습지향	.457	.086	.465	5.331***	2.884
$R^2=.475$ $F=59.919^{***}$					

*** $p<.001$

다.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

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2.5%($R^2=.52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3.230$, $p=.000$). 학습지향($\beta=.520$, $p=.000$)과 목표지향($\beta=.181$, $p=.000$)은 몰입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은 몰입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활동지향과 목표지향이 높을수록 몰입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808	.199		4.055	
활동지향	.081	.084	.071	.970	2.236
목표지향	.180	.083	.181	2.167*	2.930
학습지향	.518	.083	.520	6.263***	2.884
$R^2=.525$ $F=73.230^{***}$					

*** $p<.001$

라.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쾌락적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쾌락적 즐

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분석 대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5.0%($R^2=.550$)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1.130$, $p=.000$). 학습지향($\beta=.563$, $p=.000$)과 목표지향($\beta=.196$, $p=.000$)은 쾌락적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이 높을수록 쾌락적 즐거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은퇴 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쾌락적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평생 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쾌락적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639	.208		3.066	
활동지향	.026	.088	.021	.299	2.236
목표지향	.208	.087	.196	2.403 [*]	2.930
학습지향	.603	.086	.563	6.973 ^{***}	2.884
$R^2=.550$ $F=81.130^{***}$					

^{***} $p<.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정년은퇴자들의 평생학습의 참여활동을 통하여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와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그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성별, 연령별, 정년은퇴 여부별, 퇴직 후 기간별, 퇴직 잔여기간별, 최종학력별, 직업군별, 연금수령 여부별, 월평균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승현(2016)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연령, 직업 경력의 변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직업 유무, 가계소득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장희영(2015)의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성별, 연령, 경제활동, 월평균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와 전명수(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성별에 따라 목표지향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장희영(2015)은 성인·노인 대상의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의 수강생들이 대상으로 일반적인 성인과 노인들이고 전명수(201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34.5%가 가사 종사자로 직업에

기반한 정년은퇴시기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에 대한 시각 차이로 평생학습 활동의 참여동기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오히려 더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적 여건, 문화와 직업의 유무, 연령 등을 더 고려하여 평생학습자의 참여동기를 파악하여 실효성있고 현실성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삶의 행복감은 정년은퇴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행복감은 정년은퇴한 자가 재직 중인 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자신감은 연령별, 정년은퇴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65세가 55세~59세보다 자신감이 높았으며, 정년은퇴한 자가 재직 중인 자보다 자신감이 높았다. 이는 권혜인(2013)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 삶의 행복감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조승현(2016)의 성인학습자의 배경에 따른 삶의 행복감에는 연령, 학력, 직업 경력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종칠(2010)의 중·고령자 은퇴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에 대해서 만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삶의 행복감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정년은퇴라는 은퇴가 수십 년간 자신의 일생을 직장에 헌신하고 가정과 가족 등의 경제적 뒷받침 등에 바쳐온 삶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단계로 진정한 인생의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쾌락적 즐거움은 정년은퇴 여부별, 직업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한 자가 재직중인 자보다 쾌락적 즐거움이 높았다. 그러나 직업군별 차이는 사후검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 중 몰입감은 정년은퇴 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은퇴한 자가 재직중인 자보다 몰입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따라 삶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권해인(201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직업군마다 개인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의 요인에는 차이가 있고 다르다고 보고한 박은희(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월평균 소득별 행복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생활 차원의 은퇴준비가 잘 되었으면 경제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는 전효수(2012)의 연구결과나 노인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윤명숙 외(2012)의 연구 결과 등과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제 은퇴세대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크게 상관없이 각 개인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은 반드시 소득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거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삶의 행복감에 대한 가치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노후의 긴 시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 설 수 있는 것은 소득에 의존되는 삶의 행복감이 아니라 낮은 소득이라도 생활 속에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조승현(2016)의 평생학습 참여자의 참여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장희영(2015)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주관적 행복감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 그리고 임영희 외(2012)의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동기는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권해인(2013)의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른 행복감 차이 연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참여형태에 따라 다양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또한 새로운 변화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행복감의 심리적 이론을 잘 설명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정년은퇴자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 새로움의 추구, 학습의 즐거움, 은퇴이후의 인적교류 등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은 삶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은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승현(2016)의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 순으로 삶의 행복감이 나타난 것과, 장희영(2015)의 활동지향, 학습지향 동기의 순으로 삶의 행복감이 나타난 결과, 그리고 권인택(2013)의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는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 순으로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들과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영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참여동기가 학습지향, 목표지향, 활동지향 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삶의 행복감에 대한 하위변인 특히 활동지향형의 변인이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연구참여 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각 개인의 현실적 감각 등의 차이와 지역적인 여건과 문화 등에서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나 볼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들은 직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반 성인과 노인 또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기반으로 한 정년은퇴시기자들로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들은 직업의 경험이 있는 자들로 항상 현재나 과거에 인적교류나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형에 대한 경험이 풍부히 있고 또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형 동기보다는 학습지향형에 우선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일반 성인이나 노인들은 평생학습의 장을 활발한 인적교류의 활동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향형의 동기가 우선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자들이 현실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참여동기가 달라짐을 의미하고 참여동기와 삶의 행복감의 관계를 설명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평생학습의 주 대상자인 성인학습자는 매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고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는 참여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참여는 은퇴이후 노년기의 진입에 있어서 새로운 학습의 기회와 출발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하겠다. 새로운 학습, 참여활동의 기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의 변화를 적극수용하고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나머지 인생을 보람과 자아성취감, 자아통합감 등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평생학습 참여 동기 하위변인이 삶의 행복감 하위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학습지향, 활동지향, 목표지향은 모두 행복감의 자아실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향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학습지향, 활동지향, 목표지향 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취감과 학습에의 열정 등을 위한 학습지향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적교류의 왕성한 활동인 활동지향, 자신이 목표로 한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지향형은 모두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쳐 자아의 완성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학습지향은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과 목표지향은 자신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는 것을 말하므로 매우 강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존감으로 승화하여 노년의 삶의 행복감을 성취하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아울러 특히 평생학습의 참여기회가 많다면 자신의 인적교류를 위한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가 많아져 그 자체에 매우 강한 만족감과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재(2016)의 평생교육참여가 삶

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몰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으로 몰입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활동지향과 목표지향이 높을수록 몰입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감은 다른 잡념을 배제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매우 강한 집념으로 그것을 성취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몰입감의 부족으로 목표하였던 그 무엇을 이루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동기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들은 강한 몰입감으로 자신이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 성취하여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은 쾌락적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지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중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이 높을수록 쾌락적 즐거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쾌락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해인(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쾌락적 즐거움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의 정서나 마음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나 갈등, 정서적 상태 등을 평생학습을 통하여 해소하고 특히 자신의 지적욕구나 호기심등은 새로운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순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 할 수 있겠다.

2. 결론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은 오랫동안 인간 개개인은 물론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꾸어 왔다. 특히 의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사회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은퇴라는 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나이가 도래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후 많은 남은 여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더욱 더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많은 은퇴자들이 직장을 은퇴하고 사회의 고령화를 급격히 가속화 시키고 있어 고령사회의 큰 과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와 산업의 변화로 정년 은퇴를 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는 많이 좁아져 이로 인하여 무료함으로 일상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즈음에 하나의 방안으로 정년은퇴 이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년은퇴자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탐색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동기 활동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해봄으로써 은퇴자의 은퇴 준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평생학습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선행연구와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내용을 분석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은 평생학습 참여 동

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 배경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퇴직 후 기간, 직업군, 연금수령 여부, 가구별 소득은 평생학습에의 참여 동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큰 동인(動因)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적 배경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다소 다른 것을 감안해 보면 연구 참여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특히 연령, 직업, 월 소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개인이 처한 여건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참여동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변화성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을 기반으로 한 정년은퇴시기자들에게는 개인적 배경 변인이 큰 차이를 보이기 보다는 각 개인이 가지는 인식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에의 참여 동기도 개별 변인의 구분에 의해 참여동기가 크게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생학습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에 참여하려는 평생학습자 개개인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정책입안 및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평생학습자들의 이러한 기본 인식의 개별 여건들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라 삶의 행복감에는 다양한 개인차로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배경 변인인 연령대, 정년은퇴여부, 직업군 등에서는 삶의 행복감의 하위변인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재 은퇴자나 은퇴시기에 있는 자들의 삶의 행복감에 대한 가치나 요건 등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의 요건이 어느 특정한 요건에만 국한되거나 정해지는 요건이 아니고 각자 개인의 여건이나 사고, 가치관 등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은퇴시기에 있는 자들의 개별 맞춤형 형태로 개개인의 삶의 행복감

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평생학습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 대상자들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기회를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삶의 행복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평생학습자들은 평생학습 참여 동기, 활동 등을 통하여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년 은퇴시기에 있거나 정년은퇴를 한 자에게는 평생학습의 참여활동이 삶의 행복감 하위 요인인 자아실현, 자신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삶의 행복감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정년 은퇴자 및 준비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노후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배움의 장, 인적교류의 장, 새로운 목표에의 도전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생활하려 하고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년은퇴시기자는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활동하고 즐거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감안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년은퇴시기에 있는 평생학습자들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의 행복감을 가장 선호하고 아울러 자신감과 몰입감의 행복감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 동기인 학습지향, 활동지향, 목표지향은 모두 삶의 행복감의 자아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 학습지향형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습지향형은 삶의 행복감의 자신감과 몰입감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형은 몰입감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직업을 기반으로 한 정년은퇴시기자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직장이라는 조직적 문화속에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아를 재형성하고 위축된 자신감 등을 회복하려는 계기로 가지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의 문화와 정년은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은퇴자의 은퇴 이후의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년은퇴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은퇴로 이루어지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과 국가 건강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하나만의 해답 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령으로 진입하는 한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결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생 학습에 대한 참여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을 때 고령사회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직업 분포를 포함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배경변인과 참여동기의 좀 더 세밀한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군에서 느끼고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감안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자료조사 시 각 변인들의 세밀한 구분과 분류에 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유도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심층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유도하여 각 변인들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구성시 특정 지역의 편중에서 벗어나 지역적 여건이나 문화 그에 따른 사고의 차이 등을 일반화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욱, 김백윤, 박미진, 신영호 (2005). 태극권수련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869~875.
- 고정임 (2018).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6).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인탁 (2013).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가 만족도 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1(3), 139~164.
- 권중돈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 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5.
- 권해인 (2013).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른 행복감 차이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영화 (200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8(3), 89~109.
- 김경태 (2011). 경찰퇴직관리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171~194.
- 김나연, 김성희, 정은하 (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253~288.
- 김남원, 장선철 (2016).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행동, 은퇴만족도

-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522~531.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3), 801~817.
- 김두섭, 강남준(2008).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 출판.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725~731.
- 김미란 (201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이현주, 서미경 (2008).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8(1), 123~142.
- 김병욱 (2017). **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사라, 김라경 (2016).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을 조절효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23~33.
- 김정영, 한상훈 (2013).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34(2), 179~208.
- 김종서 (1982). **노인교육의 교과과정 개발**. 서울: 대한노인회.
- 김종식 (2014).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식, 임왕규 (2014).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179~189.

- 김태중, 전주성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노인의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HRD 연구**, 11(3), 117~132.
- 김한별 (2015).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현순 (2010). **노인의 종교적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의 관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승규 (2017). **행복심리학**. 경기도: 양서원.
- 노현정 (2018). **평생학습자의 개인성취에 의한 군집화와 특성 탐구**.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봉애 (2017).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당영 (2008). **성인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적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10). **은퇴 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2017). **평생학습 참여가 여성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준, 양명환 (2004) 마라톤대회 참여동기,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도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71~186.
- 방하남 (2010). 인구 고령화시대 정년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 서명환 (2011).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태무, 최은수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평생교육정책 분석

- 과 정책개발 탐색. **평생교육·HRD 연구**, 8(1), 83~105.
- 성지미, 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손덕화 (2017). 은퇴세대의 노후준비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지역사회논문집**, 42(2), 167~183.
- 손미혜 (2013). **은퇴자의 은퇴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종철 (2010).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0(2), 125~153.
- 송은주 (2011). **평생교육참여동기가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계수, 조정숙 (2011) 베이비붐세대의 직업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 실태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3), 41~50.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 (201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상수 (2016) 베이비붐세대 노후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6, NO-2016, 151~183.
- 심은정 (2012). **고령사회의 정년제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화순, 문재우 (2018).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5), 592~599.
- 안효권 (2018).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자살생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 희 (2012).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 희, 한정란 (2014).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교육에 대한 욕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585~595.
- 오여경 (2011). 노인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도구개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은정 (2009). 요가수련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엽, 기영화 (2008).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5(1), 47~66.
- 윤가현 (2000). 정년퇴직. **한국노년학연구**, 9, 3~4.
- 윤명숙, 이묘숙 (2012).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397~413.
- 윤옥한 (2017).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윤재원 (2005). **무용활동과 심리적 행복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4). 노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2), 49~77.
- 이기숙, 김현지 (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0(6), 133~144.
- 이부일, 기영화 (2009).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5(1), 75~102.
- 이선재 (2016).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와 삶의 질간에 사회저기지지가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이해랑, 최현자, 김난도, 나종연 (2018).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적응유형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2), 31~66.

- 이승원 (2007). **중·고령자의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영, 김진화 (2016). 평생학습자의 개인지식관리 탐색과 군집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1), 47~70.
- 이영균, 최창희 (2006). 교원의 정년퇴직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한국 공공관리학보**, 20(1), 73~98.
- 이현정 (2008). **일반계 고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길, 김광용 (2020). 정년퇴직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성공적 노화와 의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29(3), 103~111.
- 이호선 (2010).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우, 이옥자, 노연수 (2013). 고학력 남성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 후 심리적 특성 변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18, 97~132.
-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노인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한국노년학**, 29(3), 1141~1158.
- 장희영 (2015)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기창, 이동호 (2009).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지**, 1(2), 43~64.
- 전명수 (2012).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숙 (2007). **은퇴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효수 (2012).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태연 (2008). 한국노년학에서 다룬 노인의 심리적 특성:역사적 고찰과 미래의 과제. **한국노년학**, 28(4), 815~829.

조승현 (2016).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프로그램만족도 및 행복감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경선 (2017). 긍정심리학을 기반한 노년기 행복 프로그램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4(2), 217~232.

최숙희 (201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양고령사회논집**, 1(1), 1~40.

최순자 (2015).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운실 (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운실 (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최운실, 송성숙, 최라영, 김경은, 김정진, 이준석 (2017). **노인교육론** 서울: 양서원.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보도자료**(2017~2067년) 결과 요약.

한경혜, 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과정, 경제적·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1~330.

한정란 (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정란, 김종남, 김향숙 (2010). 노인 평생교육 참여의 장해요인.

Andragogy Today, 13(2), 105~131.

- 한현희 (2017). **경남지역 베이비부머와 실버세대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보연 (2005).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른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영주 (2016). 개인적 변인과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노인 삶의 만족도 차이와 평생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2(2), 77~100.
- 황은혜 (2011). **초등학생의 열등감 및 외향성과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백과사전 <https://www.naver.com>
- 다음백과사전 <https://www.daum.net>
- Boshier, R. (1973).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dropour: A theoretical model. *Adult Education*, 23, 255~282.
- Cross, K. P. (1981). *Adult as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Diener, E. (2001). Subjective well-being. Addres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San Antonio. TX.
- Miller, H. I. (1967). *Participation of adult in education: A force-field analysis*. Boston: Center for the Study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
- Moss, S. C., Prosser, H., Costello, H., Simpson, N., Patel, P., Rowe, S., Turner, S., & Hatton, C.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S-ADD checklist for detecting disorders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2(2), 173-183.

Seligman, M. E. P. (2002a).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3~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Sirgy, M. J.(1998).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227-260.



The Influenc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Learner in Retirement Age on Life Happiness

Chun Kap 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lifelong learning participa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during retirement influence the happiness of life, helping them to plan retirement and life after retirement .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for those aged 55 to 65 years of age who are living learning or learning experience at a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 located in the area around Busan City and the nearby area of retirement. A total of 250 people were surveyed and the final 203 of the 210 respondents were used for analysis.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to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or this study t- verification, member dispersion analysis and post-verifica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Scheffe was conducted to deriv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ers.

Second, the difference in life happiness based on the gener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ers during retirement 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tirement age.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lifelong learners'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during retirement age has a static influence on the happiness of life.

Fourth, the sub-variation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orientation, activity-oriented, and goal-oriented all have a static influence on self-realization, and the learning-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types have a static influence on immersion and pleasure.

Through this study, such as the above, the general background variation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nts during retirement age are not a big driver of participation, but the euphoria of life is feeling the happiness of life by a variety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feeling the euphoria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ifelong learning, it can be seen that the euphoria of self-realization is the most preferred. As a result, retirees can prepare for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pursuing a happy life after retirement, and countries and lifelong learning stakeholders will need to develop and spread in-depth programs and conditions that allow them to work and enjoy their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about the happiness of their lives.

Key word : Retirement age, Lifelong Learner, Lifelong Learning Motivation, Happiness in Life

<부록>

설 문 지

연구논문「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정년은퇴시기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학위论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계신 귀하에게 귀하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및 삶의 행복감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본 설문 내용은 위 연구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느끼시는 솔직한 답변이 본 연구에서 소중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학문적인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결과는 익명으로 다루어지며 통계적으로 처리됩니다.

본 설문지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연구자 : 천 갑원(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주 동범(부경대학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1. 다음은 평생교육학습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는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 하였습니다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퇴직을 하였다면 몇 년이 되었습니까?

① 0~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4년 미만() ⑤ 4년~5년 미만() ⑥ 5년 이상()

3-2. 퇴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까?

① 0~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4년 미만() ⑤ 4년~5년 미만() ⑥ 5년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5. 귀하는 현재(또는 퇴직당시)에 아래의 어느 직업군에서 재직하하였습니까?

① 공무원() ② 정부공공기관() ③ 교원·교사·교직원()

④ 정부기업체() ⑤ 일반 민간기업체() ⑥ 기타 ()

6. 귀하는 퇴직을 하(였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연금을 수령하면 어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① 국가 3대 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② 국민연금() ③ 기타 개인연금()

7.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2. 다음은 평생교육학습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하는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illegible]

1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3	여럿이 모여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사회적 명예를 높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6	주위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7	배우자, 부모 자녀, 친구들 다른 사람들의 지시나 요청이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8	윗사람의 추천이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9	주위사람들이 좋다고 권해서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2	가정이나 직장 이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에서 인정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생활의 경쟁에서 뒤지고 싶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15	지금까지 배워온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맡은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7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항목	학위 취득 희망	학위 취득 희망	학위 취득 희망	학위 취득 희망	학위 취득 희망
18	내가 맡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나 기술을 얻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0	학위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1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적 환경을 접해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2	앞으로의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3	앞으로 직업을 새로 구하거나 창업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직업에 관련된 제한된 지식 이외의 폭넓은 지식 교양에 접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26	무엇인가 “배운다”는 그 자체가 보람 있게 느껴져 서	①	②	③	④	⑤
27	지식이나 기술 획득 그 자체가 보람 있게 느껴져서	①	②	③	④	⑤
28	학습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9	알고자 하는 나의 순수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30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31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①	②	③	④	⑤
32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나 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3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평생교육학습에 참여한 참여자의 삶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난 뒤 해당되는 느낌에 √하여 주십시오.

번 호	항목	매우 불행하다	매우 행복하다	매우 불행하다	매우 행복하다	매우 불행하다	매우 행복하다
1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자신을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정신 집중이 잘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변과 일치되고 조화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음이 편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매우 강한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보다 흥에 더 도취된다.	①	②	③	④	⑤	